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4. 12(목)】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작성자	과장	사무관	이병철	김진원
	연락처	054-880-3177			

경북도, 소중한 자연유산 문화재 이렇게 지켜요

- 12일(목), 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보수정비사업 설계 검토회의 -

경상북도는 12일(목) 도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설계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2개 시군 공무원과 설계업체, 관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시군 담당공무원과 설계업체에서 올해 유지관리가 필요한 자연유산 문화재(천연기념물 식물 25건, 명승 5건)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 및 보수치료 방안,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환경정비, 상시모니터링 방안 등을 발표한 후,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유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와 사유재산 권리주장 등으로 자연유산 문화재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및 상시 관리를 강화하고, 시군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의 유지관리 방안, 문제점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검토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경상북도 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들이며, 해충학, 산림자원학, 식물학 계통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재위원들은 천연기념물 식물류 관리 및 병해충 관리의 유의 사항과 식물류가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가급적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모니터링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사후처방이 아닌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원 경북도 문화유산과장은 “오랜 세월 우리와 같이 살아온 자연유산 문화재는 문화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 기능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예방과 예찰을 중심으로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시군 관계자들이 보존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4. 12(목)】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작성자	과장	사무관	김경숙	김현린
	연락처	054-880-3190			

경북도, 야영장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현장대응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 -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12일(목) 안동시 수산물 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야영장사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도내 등록된 야영장 약 23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겸한 현장대응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야영장 사업자는 관광진흥법령(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반드시 연 1회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야영장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중심의 야영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캠핑 문화 조성을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 프로그램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10개소 264백만원, 야영장 활성화 사업 3개소 260백만원을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했다.

김현린 경북도 관광진흥과과장은 “이번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통해 야영장이 안전한 레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캠핑문화 붐업 트렌드에 맞춰 야영장이 안전을 기반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경북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